

‘빛더미 한전’ 설비 투자 감소에 ‘정전 쇼크’ 불안 커진다

정전 2018년 506건서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올 1000건 넘을 듯
지난해 대규모 적자에 송배전 설비투자 전년 대비 37472억원 감소
호당 정전시간 2018년부터 증가세...피해복구 시간도 점차 늘어나

#1. 지난 11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과 광전동, 유촌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가와 빌라 등 155여 세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한국전력은 정전이 발생하자 자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세대에 단전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발송했지만, 시민 불편은 이어졌다. 한전은 이날 정전의 원인을 지상변압기 고장을 추정하고 변압기를 교체해 사고 발생 4시간 여 후에야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2. 무더위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던 지난 8월 7일 새벽 4시2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과 남구 송하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대

아파트 약 1200세대 주민들이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이날 사고는 전신주에 설치된 ‘피뢰기’(낙뢰 피해 차단 장치)가 고장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은 1시간 30분여 만에 복구했다.

이따르는 전력 공급 이상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정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잦은 정전이 전력망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채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채 해소 전에는 관련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06건에 불과했던 정전 건수는 지난해 933건으로 84%(427건)나 증가했다. 정전 건수는 지난 2019년 641건→2020년 649건→2021년 735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고 지난해 933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의 경우 1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광주·전남지역의 정전 발생 건 수 증가폭은 더욱 컸다. 지난 2018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정전은 45건이었으나 매년 증가를 거듭해 지난해 95건으로 111%(50건) 불어났다.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전 발생 시 피해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호당 정전시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정전시간은 지난 1981년(891분) 이후 시스템과 설비 증설로 감소해왔지만, 2018년(8.59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9년 8.61

분, 2020년 8.9분, 2021년 8.92분으로 점차 늘더니 결국 지난해 9분 대를 넘어서며 호당 정전시간 9.05분을 기록했다.

물론 프랑스(49분)와 영국(38분), 독일(12.8분) 등 주요 선진국에 견줘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줄어들어야 할 피해복구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적자난을 겪고있는 한전이 전력망 관리에 소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월 울산에서는 15만5000세대에 정전이 발생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정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한전은 대정전 사고와 적자 상황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으며 “노후 설비는 규정대로 교체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늘어난 정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이후 배전계통 운영정책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환함에 따라 화재 등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 민감도를 단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며 “안전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반대급부로 정전 건 수가 소폭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전의 설명대로라면 운영정책의 변화로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 등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안전민감도를 올린 만큼 정전 건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은 올릴 대로 올려놓고 피해 방지는 소홀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당장 송배전 설비에 대한 한전의 투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한전의 송배전 설비 투자규모는 6조1355억원으로, 전년(6조 3907억원)에 견줘 3772억원(6.2%) 감소했다. 한전이 200조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만큼 추후 송배전 관련 투자는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배추·무 초과 생산...aT, 수급안정 위해 정부수매 비촉 나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배추와 무의 가격 약세가 지속되자 배추 5000t, 무 3000t 수매에 나섰다. 사진은 정부수매비촉을 위해 수확되고 있는 겨울 무. <aT 제공>

배추 5000t·무 3000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2일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수매비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aT는 배추와 무의 가격 약세가 지속되자 배추 5000t, 무 3000t을 수매하고 있다.

aT에 따르면 겨울배추는 주산지인 기상 여건이 회복돼 평년 대비 2만4000t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겨울 무는 평년보다 적으나 지난해보다 18.7% 증가한 5만7000t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돼 수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수매는 플라스틱 박스 저장 도입으로 저장성을 보완해 더욱 질 좋은 비축물자를 시장과 가공업체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는 톤백 벌크 포장을 최초 도입해 물류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시장격리와 가공용 활용성 증대가 기대된다.

비축한 물량은 겨울철 한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 활용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올해 지진과 누수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재해예방 계측사업이 추진된 구례군 백력지구 정경.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농어촌공사, 재해예방계측사업 대상 확대

61개 지구 추가...239곳 지진·누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12일 저수지와 방조제의 지진·누수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측사업 대상으로 61개 지구로 추가, 확대했다고 밝혔다.

재해예방계측사업 추가 확대로 전남지역은 총 239개 지구에서 지진이나 누수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재해예방계측사업은 저수지와 방조제에 제방변위계측기와 제방누수계측기, 지진가속계측기 등을 설치해 재해위험 예보 및 경보가 가능하다.

각 계측기는 지진·누수 등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첨

단 측정 장비로, 전남본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전남지역에 계측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구례군 백력지구에 설치된 자동탐사기를 포함해 누수계측기, 강우량계, 유량유속계, CCTV 등을 추가한 스마트재해예방계측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영호 전남지역 본부장은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밀하고 정확한 정보망 구축이 필수적이다”며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지역 농어촌의 안전한 삶과 식량안보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켄텍,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 테크로스에 이전

시스템 설계 노하우 전수

한국에너지공단(켄텍)은 김창희 교수가 개발한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설계 노하우’를 수전해 장치 전문기업인 테크로스로 이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협약식에는 윤의준 켄텍 총장, 박진호 연구부총장, 한중희 수소에너지연구소장,

김창희 교수와 박석원 테크로스 대표, 권경안 연구소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김창희 교수는 앞으로 2년 간 테크로스에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노하우 이전,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국가 연구과제를 테크로스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은 알칼라인 환경에서 순수한 물에 전기를 흘려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값싼 소재를 사용할 수 있고 대용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테크로스는 선박 평형수 전기분해 처리 분야에서 세계 1위로 꼽히는 기업으로 최근 수전해 등 그린수소 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윤의준 켄텍 총장은 “교원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상용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전해 시스템 설계 노하우 이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그린수소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